

한 남자가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운 1월의 아침이었죠. 그는 약 45분 동안 6개의 바흐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러시아워라 출근길에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역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연주한 45분 동안 단 6명만 가던 길을 멈춰서 잠시라도 머물렀다고해요. 약 20명이 그에게 돈을 줬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바빴습니다. 그는 그날 32불을 모았습니다. 그가 연주를 끝내고 침묵이 흘렀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몰랐지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는 350만 달러 가치의 바이올린으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작품 중 하나를 연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공연하기 이틀 전에, 조슈아 벨의 연주회는 보스턴의 한 극장에서 매진되었고 좌석은 평균 100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람들의 인식, 취향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사회적 실험을 해본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바쁜 출근 시간에 귀한 재능을 허비하느냐, 좀 한가한 시간에 찾아왔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즐겼을텐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때론 우리가 선택해서 좋은 음악회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어디 진행되니까? 안 그럴때가 사실 더 많아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잠시라도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 음악가의 아름다운 연주를 잠시라도 멈춰서 들을 여유가 없는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지나쳐 버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기대

가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거죠. 아마 조슈아 벨이 자신이 어떤 연주자인지 알리고 연주를 했다면, 바쁜 와중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신뢰를 갖지 않고 연주를 들었을 때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잠시 멈출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신앙 생활의 진가도 알 수 없게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시편130편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궁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과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그것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5-6절에만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또한 비슷한 의미의 ‘바란다’ 는 표현이 5절과 7절에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바라며 기다렸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삶이 너무 치열하고 분주해서 기다리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5.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과 다릅니다.

기다리다[카바:kaaba in Hebrew] 기대하다, 쳐다보다. 본래 의미는 함께 ‘묶다’ (bind together),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께 함께 (나를) 묶으며/얽으며’ 내가 자꾸 판길로 가니까 나를 하나님께 묶는 겁니다. 내가 자주 방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엮는 겁니다. 내가 바쁜 세상 삶 속에서 다른 것들에 치여서 하나님을 놓치기 쉬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적으로 쳐다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5:4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과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게되고, 능치못한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다린다’ 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놔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다윗이 대표적이죠!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위었고, 그랬더니 승리했고, 그와같이 형통케 되었는데, 그 흔적이 이 시편이라는 주옥과 같은 기도로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곧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별볼일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좀 쉬고 싶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보통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오기를 바래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영똥한 것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죠.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8.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

씀합니다. 내 눈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존스 홉킨즈 대학의 교수요, 외과 의사였던 켈리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전도에도 열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양복을 입을 때면 항상 장미꽃을 꿋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장미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조화가 아니었음에도) 그러자 한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그 꽃은 시들지 않지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별다른 비법은 없지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양복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복 속주머니에 조그마한 물병을 달아 놓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이면서 켈리 박사는 ‘우리도 이 꽃과 같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생활의 뿌리가 물 속에 있어야 하지요. 생명수 말이예요!’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에서 생명력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가 딱딱합니다. 무언가를 향하여 질주를 하지만 그 방향이 옳은지도 때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끈을 놓아선 안되요! 여러분을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묶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